

#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성경험 특성 실태

신경림<sup>1</sup> · 박효정<sup>2</sup> · 배경의<sup>3</sup> · 차지영<sup>4</sup>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sup>1</sup>, 조교수<sup>2</sup>, 시간강사<sup>4</sup>,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3</sup>

##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hin, Kyung Rim<sup>1</sup> · Park, Hyo Jung<sup>2</sup> · Bae, Kyung Eui<sup>3</sup> · Cha, Chiyoung<sup>4</sup>

<sup>1</sup>Professor, <sup>2</sup>Assistant Professor, <sup>4</sup>Part-time Lecture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sexual behavior, health risk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Methods:** Six thousands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proportional quota sampling based on region, college, and gender.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describe the data. **Results:** Thirty eight percent (N=2,285)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sexual intercourse. The mean age of first time sexual intercourse was 19.3 years old. Respondents reported the following health risks such as smoking, drinking, not exercising, no regular meal patterns, chronic disease status, and weight loss over 10 kg in the past three month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 $p < .01$ ). Among those who ha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s, 7.1% of them reported having a history of STDs and 11.6% reported a pregnancy or pregnancy of one's partner.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flect the current trends of sex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nd correlations between health risk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s. Developing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and providing the programs to college students through a school nurse is suggested.

**Key Words:** Sexual behavior, Health behavior, Reproductive health,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와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주요 항목이다(Park et al., 2010). 성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성행동은 문화에 따라 수

용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0).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1981년의 초혼 연령은 남성은 26.4세, 여성은 23.2세였던 것이 2008년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각각 5세씩 증가하였고 미혼 기간이 길어지면서(Kim, 2010) 결혼과 성관계의 시작을 동일시점으로 보고 혼전순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사회문화적 인식은 점차

**주요어:** 대학생, 성행동, 건강행위, 생식건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Kyung Rim,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ea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86, Fax: 82-2-3277-4986, E-mail: krshin@ewha.ac.kr

- 본 논문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f 2007.

투고일 2010년 8월 27일 / 수정일 2010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14일

개방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성해방 의식은 한국사회에서 남녀 모두에게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해방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혼전임신, 미혼모, 낙태, 잘못된 피임법의 사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50% 이상이 성병이나 임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20-24세 미혼모 비율은 33.7%, 연간 낙태추정 건수는 100만~150만 건 등 청년의 생식건강 관련 건강지표가 불량하게 나타나 청년기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ang, Park, Kim, & Choi, 2006).

성인기 초기는 성적 접촉 등 성건강의 신체적 측면인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빈번해지는 시기이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성병감염 및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증가로 생식건강의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된다(Finer & Henshaw, 2006). 이 시기의 비효과적인 자가건강관리는 청년기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결혼기에 불임률 증가, 생식기 악성질환 이환율 증가, 조기치료와 예방 시기를 놓치는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학생 시절의 생활양식과 건강 행태는 그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시절부터는 자기 생활에 주체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생활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자신의 책임의식이나 주체성이 강화된다(Lee & Ban, 1999).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은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관리자의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성행동에 대한 관리와 병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구체화된 생식건강 자가관리능력 함양과 체계화된 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생식건강 관련 정보를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산발적 자료와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어(Kim, 2003; Choi & Ha, 2004), 현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과 생식기 건강 실태에 근거한 대학교 내 대학보건소 및 대학부속 병원을 연계한 생식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기존의 대학생 생식건강 관련 현황 연구는 그 규모에 있어 일 지역 또는 소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산발적 정보가 주를 이루며(Cho, 2004; Cho & Kim, 2006; Jeon, Lee, & Rhee, 2004; Kang, 2007) 전국대학생의 생식건강 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 확보가 어려웠다. 이러한 기존의 소규모 실태조사결과로는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정책안 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의 대표성을 확보한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통합실태 자료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효율적인 방

안으로 전국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실태를 반영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대학 내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전국 모든 대학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청년 건강 증진뿐 아니라 전체 국민 건강증진과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그 근간이 되는 전국대학생 생식건강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대학생들의 지역별 생식건강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 양상을 분석한다.
- 대상자의 생식건강 관련 특성 중 성교 경험과 생식건강 관련 위해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 성교 경험이 있는 한국 대학생의 구체적인 성경험 특성을 분석한다.

## 3. 용어정의

### 1) 성행동

성행동이란 자위행위, 이성교제, 신체접촉이나 키스등과 같은 간접적인 성 관련 경험이나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Nam, K. O. 2003), 본 연구에서는 Kang (2007)의 성행동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이성교제, 성 관련 매체 접촉, 이성교제 깊이, 성교를 의미한다.

### 2) 생식건강

생식건강은 성건강의 신체적인 측면이며, 인간이 성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생식기의 건강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성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경험 특성, 생식기질환, 그리고 생식건강 관련 위해요인을 의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을 산출하기 위하여 통계학자에게 의뢰하여 비례 할당 표집(Proportional Quota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례 할당 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두 개 이상의 하위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대

상자를 표집 할 경우 이용된다. 할당(quota) 표집 방법은 대상자집단을 모집단의 하위집단의 특성, 즉 나이, 성별, 학력, 종교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비례(proportional) 표집 방법은 모집단의 하위집단의 특성 비율에 따라 같은 비율로 대상자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Morrow et al., 2007). 예를 들어,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경우, 모집단의 연령층의 비율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 대상자 집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단과 연령 비율이 같게 연령대 별로 대상자집단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하위집단의 특성으로 지역, 성별, 그리고 대학종류(4년제, 전문대, 남녀공학, 여대)를 선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한국의 전국별 대학생 분포 비율에 따라 지역별 분포를 서울/경기/강원 지역, 대전/충북/충남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북/전남/광주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으로 선정 한 후, 지역별로 선정된 대학을 4년제 대학, 전문대, 남녀공학, 그리고 여대의 비율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 중 그룹별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자료수집 대상 대학을 선정하여 자료수집 대상 대학이 지역별 대학종류별로 전국의 비율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자료수집 시 다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지역별 대학생의 남녀비율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비율은 연구 수행에 동의한 서울/경기/강원 지역 2556명, 대전/충북/충남 지역 996명, 부산/울산/경남 지역 900명, 전북/전남/광주 지역 738명, 제주 지역 78명으로 총 6,000명이었으며, 남학생은 총 3,758명, 여학생은 2,242명(여학생 중 183명은 여대 여학생)이었다. 2007년 12월 6일부터 시작한 자료수집은 각 지역별 표본수가 충족되는 시점까지 실시하여 2008년 1월 6일까지였다.

## 2.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동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시작 전 대학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성행동과 생식건강에 대한 문항과 측정도구를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은 후반부에 넣어 설문지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정확성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 전단계에서 남학생 47명 여학생 52명을 대상으

로 200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후 이해도, 문항의 적절성, 배치, 응답 시간 등을 사정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성행동 측정 도구

Kang (2007)이 사용한 대학생의 성행동 측정 도구의 일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성행동을 측정하였다. 간호학 교수 2인과 성교육 전문교수 2인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예비조사로 100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응답자수가 적거나 오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질문은 이성교제, 성 관련 매체 접촉, 이성교제 깊이, 성교, 임신 및 낙태 여부에 관한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생식건강 관련 특성

생식건강 관련 특성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생활패턴을 알아보는 연구도구인 Bancroft 등(2003)의 Kinsey Institute Sexual Activity and Condom Use Questionnaire와 Bancroft 등(2004)의 DSHQ (Demographic and Sexual History Questionnaire)에서 여성건강 성행동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생식건강과 관련된 문항 중 문화적 적절성을 고려하여 총 25문항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성경험 특성 관련 질문(8문항), 생식기질환 관련 질문(6문항), 생식건강 관련 위험요인 질문(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경험 관련 질문은 성교빈도에 대한 질문 1문항, 첫 성교 시기에 대한 질문 1문항, 성 파트너에 대한 질문 2문항, 장소에 대한 질문 1문항, 피임 관련 질문 2문항, 성교 동기에 대한 질문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식기질환 관련 질문은 성교 불편감 경험, 성병 경험, 생식기 피부질환 관련 질문 각각 1문항씩, 임신중절 경험 관련 질문 2문항, 방광염 경험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식건강 관련 위험요인은 흡연 1문항, 음주 1문항, 비타민 복용 1문항, 만성질환이환여부 3문항, 성병 1문항, 체중변화 1문항, 운동 1문항, 그리고 식습관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행동 양상과 성경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생식건강 관련 특성간의 관계는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체중감소( $p=.019$ ), 규칙적인 운동( $p=.000$ ),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p=.008$ )가 통계적으로 성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성교 경험자의 성경험 특성

대상자의 성경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총 2,285명(38.1%)이 성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교 빈도는 5-10회가 1,143명(50.1%)로 가장 많았고, 첫 성교 시기는 평균  $19.3 \pm 2.3$ 세였다. 성교 상대는 애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738명(76.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일회적 상대나, 성매매자와 관계를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59명(11.3%)이나 되었다. 지금까지 성교 상대수는 평균  $4.8 \pm 7.8$ 명이었다. 성교 장소로 가장 많이 응답한 곳은 집(1,006명, 44.0%)이었다. 성교 시 피임여부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085명(47.5%)이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임법은 콘돔(1,681명, 73.6%)이었다. 성교동기에 대한 응답은 ‘사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30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분위기(585명, 25.6%), 호기심(409명, 17.9%) 순이었으며, 상대의 강요와 사랑을 잃을까봐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각각 59명(2.6%)과 26명(1.1%)이었다. 성교 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는 대상자가 450명(19.7%)이었으며, 성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163명(7.1%)이었다. 임신경험이 있거나 상대를 임신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6명(11.6%)이었으며, 임신중절 경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임신중절을 한 경우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성행동 양상

대상자의 성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70% 이상이 간접적인 성행동 즉, 이성교제(4,651명, 77.6%), 포르노 잡지 및 비디오 접촉(4,403명, 73.4%), 키스 및 포옹(4,557명, 76.0%)의 경험이 있었다. 자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238명(54.0%)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패팅과 음란 전화 경험은 각각 1,868명(31.1%)과 500명(8.3%)이었다. 직접적인 성행동 경험에 대해서는 2,285명(38.1%)이 성교 경험이 있었으며, 구강성교 경험자는 1,016명(16.9%), 항문성교 경험자는 177명(3.0%), 그리고 동성에 경험자는 98명(1.6%)이었다.

### 2. 대상자의 생식건강 관련 특성 간의 관계

대상자의 생식건강 관련 특성 중 성교경험과 위해요인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한국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위해요인 중 흡연( $p=.000$ ), 음주( $p=.000$ ), 약물복용( $p=.030$ ), 고혈압 및 당뇨질환( $p=.000$ ), B형간염( $p=.003$ ), 갑작스런

Table 1. Description of Sexual Behavior

(N=6,000)

Sexual behavior items	Yes	No
	n (%)	n (%)
Porno magazine/porno video contact	4,403 (73.4)	1,597 (26.6)
Friendship with opposite sex	4,651 (77.5)	1,349 (22.5)
Kiss/embracing	4,557 (76.0)	1,443 (24.1)
Petting	1,868 (31.1)	4,132 (68.9)
Masturbation	3,237 (54.0)	2,763 (46.1)
Phone sex	500 (8.3)	5,500 (91.7)
Sexual intercourse	2,285 (38.1)	3,715 (61.9)
Oral intercourse	1,016 (16.9)	4,984 (83.1)
Anal intercourse	177 (3.0)	5,823 (97.0)
Sexual intercourse between same sex partners	98 (1.6)	5,902 (98.4)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Intercourse and Health Risk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N=6,000)

Health risk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Categories	n (%)	Sexual intercourse		$\chi^2$	p
			Yes	No		
			n (%)	n (%)		
Smoking	Yes	1,762 (29.4)	1,096 (62.2)	666 (37.8)	615.41	< .001
	No	4,238 (70.6)	1,189 (28.1)	3,049 (71.9)		
Drinking	Yes	4,630 (77.2)	1,889 (40.8)	2,741 (59.2)	63.43	< .001
	No	1,370 (22.8)	396 (28.9)	974 (71.1)		
Substance use	Yes	66 (1.1)	34 (51.5)	32 (48.5)	5.11	.030
	No	5,934 (98.9)	2,251 (37.9)	3,683 (62.1)		
Exercise regularly	Yes	1,507 (25.0)	703 (46.6)	804 (53.4)	62.62	< .001
	No	4,493 (75.0)	1,582 (35.2)	2,911 (64.8)		
Keep regular meal times	Yes	2,466 (41.1)	890 (36.1)	1,576 (63.9)	7.05	.008
	No	3,534 (58.9)	1,395 (39.5)	2,139 (60.5)		
Take vitamin regularly	Yes	1,271 (21.2)	470 (37.0)	801 (63.0)	0.83	.380
	No	4,729 (78.8)	1,815 (38.4)	2,914 (61.6)		
Dermatitis in genitals	Yes	291 (4.8)	123 (42.3)	168 (57.7)	2.28	.138
	No	5,709 (95.2)	2,161 (37.9)	3,547 (62.1)		
Cystitis	Yes	151 (2.5)	64 (42.4)	87 (57.6)	1.22	.271
	No	5,849 (97.5)	2,221 (38.0)	3,628 (62.0)		
Hypertension or DM	Yes	143 (2.4)	76 (53.1)	67 (46.8)	14.10	< .001
	No	5,857 (97.6)	2,209 (37.7)	3,648 (62.3)		
Tuberculosis	Yes	113 (1.9)	44 (38.9)	69 (61.1)	0.04	.846
	No	5,887 (98.1)	2,241 (38.1)	3,646 (61.9)		
Hepatitis B	Yes	187 (3.1)	91 (48.7)	96 (51.3)	9.16	.003
	No	5,813 (96.9)	2,194 (37.7)	3,619 (62.3)		
Weight loss over 10 kg in the past three months	Yes	379 (6.3)	166 (43.8)	213 (56.2)	5.61	.019
	No	5,621 (93.7)	2,119 (37.7)	3,502 (62.3)		

는 251명으로 임신경험자 중 94.4%가 임신중절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신 중절 후 합병증을 경험한 경우는 44명으로 임신중절자 중 17.5%이었으며, 합병증의 종류는 출혈(25명, 56.8%), 요통(23명, 52.3%), 복통(21명, 47.7%), 그리고 빈혈(18명, 40.9%) 순이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전국 남녀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성행동, 생식건강 관련 위험요인, 성경험 특성 실태를 조사하고, 생식건강 관련 위험요인에 따른 성경험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대학생의 생식건강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77.6%였는데, 이 결과는 10년 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행동을 조사한 Ahn, Chung과 Lee (1997)의 75%와 비슷하며, Kang (2007)의 연구에서도 75.2%로 차이가 없었다. Ahn 등(1997)의 연구에서는 키스가 40%였던 반면, 최근의 연구인 Lee와 Cho (2007)의 연구에서는 포옹은 71.2%, 키스는 60.6%로 보고 되어 본 연구에서 키스 및 포옹 경험이 76.0%이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하였다. 자위행위와 성관계는 Ahn 등(1997)의 연구에서 45%와 19.0%이었고, Lee와 Cho (2007)의 연구에서는 35.4%와 24.6%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54.9%, 38.1%로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접촉실태는 Lee와 Cho (2007)의 연구에서

**Table 3.** Description of Sexual Experience (N=2,285)

Items	Categories	n (%) or M±SD
Frequencies	1 time	363 (15.9)
	5~10 times	1,143 (50.1)
	1/week	531 (23.2)
	3/week	188 (8.2)
	Every day	60 (2.6)
Onset of sexual intercourse		19.3±2.30
Sex partners	Lover	1,738 (76.0)
	One's contemporary at college	247 (10.8)
	One time partner	146 (6.4)
	Prostitute	113 (4.9)
	Others	41 (1.9)
Number of sex partners		4.8 ±7.81
Places for sexual intercourse (multi responses)	Home	1,006 (44.0)
	Hotel	991 (43.4)
	Video room	95 (4.2)
	Bar	66 (2.9)
	Other places	115 (5.0)
	Declined to answer	27 (1.2)
Contraceptive practice	Always	1,085 (47.5)
	Sometimes	971 (42.5)
	Never	196 (8.6)
Methods of contraception	Condom	1,681 (73.6)
	Oral pill	89 (3.9)
	Vaginal withdrawal	245 (10.7)
	Rhythm method	58 (2.5)
	Others	25 (1.1)
	Declined to answer	202 (8.8)
Motives for sexual intercourse (multi responses)	Love	1,130 (49.4)
	Mood	585 (25.6)
	Curiosity	409 (17.9)
	Force of parter	59 (2.6)
	Afraid of losing love	26 (1.1)
	Others	72 (3.2)
	Declined to answer	9 (0.4)
Discomfort at coitus	Yes	450 (19.7)
	No	1,835 (80.3)
STD history	Yes	163 (7.1)
	No	2,005 (87.7)
	Declined to answer	121 (5.3)
Pregnancy <sup>†</sup>	Yes	266 (11.6)
	No	2,019 (91.0)
Abortion <sup>†</sup> (N=266)	Yes	251 (94.4)
	No	15 (5.6)
Complications from abortion <sup>†</sup> (N=251)	Yes	44 (17.5)
	No	161 (82.5)
Types of complications from abortion (multi responses) (N=44)	Bleeding	25 (56.8)
	Back pain	23 (52.3)
	Abdominal pain	21 (47.7)
	Anemia	18 (40.9)
	Infection	11 (25.0)
	Edema	6 (13.6)
	Declined to answer	7 (15.9)

<sup>†</sup> Male: pregnancy, abortion, and abortion complications of his partner.

87.3%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73.4%와 큰 차이는 없었다. 성교 경험은 남학생은 50.3%, 여학생은 17.5%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남학생 17.6%, 여학생 8.6% (Ma 등, 2006) 보다 높은 수치였고, 호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남학생 64%, 여학생 57% (Grunseit, Richters, Crawford, Song, & Kippax, 2005) 보다 낮은 수치였다. 성행동의 양상은 사회적, 문화적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다른 국가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행동 양상이 개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unseit 등(2005)은 10년 동안 남학생의 성행동 양상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학생의 성행동 양상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행동 양상이 남학생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보면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 남학생의 성교경험은 47~56% 사이인데 반해, 여학생의 성교경험은 2.5%에서 13%까지 점점 증가하였으며, Cha (2008)에서는 성교경험이 여학생의 16%까지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인 통념의 변화와 인터넷과 매체를 통한 여성에 대한 성의 개방화를 반영해 주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차차 우리나라의 여학생들도 성적활동양상이 활발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대학생 성행동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행동 양상을 자위행위까지 조사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발달을 통한 성 관련 행동의 다양화와 대학생 성행동 양상의 개방화를 고려하고 생식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성적 행위인 패딩, 질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그리고 동성애 경험까지 조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패딩 31.1%, 구강성교경험 16.9%, 항문성교경험 3.0%, 그리고 동성애 경험이 1.6%로 보고되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그리고 동성애가 생식기 외상이나 감염성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항문성교의 경우 성병과 상관관계가 보고되어 (Flannery, Ellingson, Votaw, & Schaefer, 2003),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학생의 성행동 양상에 따른 개별적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교경험 유무와 생식건강 관련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흡연, 음주, 성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만성 B형 간염, 당뇨와 고혈압,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10 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성교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었다. 한국 남녀고등학생의 성교경험 유무와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조사한 Sohn (2002)의 연구에서

도 음주를 할 경우와 흡연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성교경험이 각각 15.16배와 28.56배가 높게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과 성교경험이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 중 특히 B형 간염의 경우 성교를 통해 전파 가능한 질환이므로 대학생의 성교육 시 성병 이외에 성교로 전파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이므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 및 식습관 등 생활습관과 성교경험이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성행동 양상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잘 드러나지 않는 성행동 양상을 건강생활 습관을 통해 파악하고,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안전하지 못한 성행동 양상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Parsons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성교경험자의 첫 성교 시기는 평균 만 19.3세였다. Cha (2008)의 연구에서는 첫 성경험이 재외동포 대학생은 19.9세, 한국 대학생은 20.6세로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Woo, Park, 그리고 Choi (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의 36.5%가 19~20세에 첫 성교를 하고, 미국대학생의 47.4%가 17~18세에 첫 성교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호주 대학생의 성교경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0% 이상이 대학교 1학년 때 첫 성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Grunseit et al., 2005). 한국 청소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성교 경험률이 19세에서 20세 사이에 급증하였는데(Han, Park, & Baek, 2001), 이는 대학교 1, 2학년 때 첫 성교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ur 등 (2007)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1~2학년 때의 첫 성교 경험이 45.7%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중국대학생의 경우 첫 성교경험의 학년이 낮을수록 성전파성질환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Ma et al., 2006), 건강관리자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생이 성교 장소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은 집(44.0%)이다. 성교 장소로 집(56.7%)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는 Hur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Cha (2008)의 연구에서 재외동포 대학생은 호텔이나 모텔(50%)을 가장 많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성문화 관습상 결혼관계 이외에 준비된 성관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아직 미혼인 상태의 대학생의 경우 집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집 혹은 본인의 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학생의 19.4%와 여학생의 23.2%가 첫 성교를 계획 없이 우연히 경험했다는 Sohn과 Chun (2005)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43.4%가 성교장소로 호텔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호텔이나 모텔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생식건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비디오방이나 바, 기타 카페나 놀이터 등도 성교 장소로 선택되고 있었다. 인터넷과 통신기기의 발달로 현재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접촉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는데, 음란물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바, 카페나 놀이터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이성간의 접촉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 된다(Lee & Cho, 2007). 음란물의 영향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공개적인 장소의 이성간의 접촉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성교 장소도 매우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교 동기는 '사랑'이 성교 경험자의 49.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교 동기로 '상대방의 강요' 2.6%와 '사랑을 잃을까봐'도 1.1%로 나타나, 상대방의 강요나 상대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성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 동기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원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가 4.2%로 보고되어(Nam H. M., 2003)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상호동의하지 않은 성행동 또는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성행동은 데이트 강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학생의 피임률은 47.5%로 이 중 73.6%가 콘돔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대학생의 콘돔 사용률은 35%(Ma et al., 2006)로 본 연구결과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8.6%인 반면, Cha (2008)의 연구에서는 22.5%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Cha (2008)의 연구대상자는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50%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례할당 표집으로 남녀의 비율이 약 3:1로 피임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11.6%가 상대방이나 본인의 임신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Hur 등(2007)과 Ma 등(200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며, 17.6%로 보고된 Sohn과 Chun (2005)의 연구결과 보다는 약간 낮다. 이는 피임에 대한 교육이 실제 성행동에서 적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기존의 피임법 교육이 성교 시 피임의 중요도와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 전달은 간과한 것은 아닌지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피임교육법에 있어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실습을 해 볼 수 있도록 교육 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병을 경험한 대상자는 7.1%로 중국 대학생의 1.5% (Ma et al., 2006)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성관계를 고등학교 이전에 시작한 경우, 음란물 접촉이 빠를수록, 17세 이전에 성에 대해 자각한 경우, 동성애 보다 양성애 인 경우, 성파트너가 많을수록, 그리고 성행동이 다양하고 활발할수록 성병 발생률이 높았다(Ma et al., 2006; Grunseit et al.,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행동은 중국보다 다양하고 활발해 지고 있으며 성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병 발생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질환에 따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고, 치료지연에 따른 건강문제 발생 및 불임 등 피해가 막중하다. 대학생의 자유로운 성생활이 사회적으로도 허용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식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성병 감염은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며,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생활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교육이나 상담 시 예방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임신을 경험하거나 상대방이 임신을 한 대상자 중 임신중절을 한 경우가 94.4%였다. 혼인제도로 인한 가족 관계만을 인정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인 대학생이 임신을 한 경우 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생식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임신 중절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인이 투입되어 생식기 건강의 측면도 교육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대상자 251명 중 17.5%가 중절 후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어, 임신 중절 합병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건강전문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 중 임신경험자의 5.6%가 결혼을 결정하고 임신을 유지하거나 여성 혼자 출산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 할 경우 산후 우울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Beck, 2001)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자의 산후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생식건강관리자는 변화하는 성행동의 활동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상담과 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여학생의 성행동 양상의 다양성과 활동성을 주시하면서 이에 맞는 관리방법을 예방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생의 임신은 생식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업 중단을 비롯해 미혼임신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함께 가진다. 고등학생과는 달리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성행동 및 생식기건강 관련 특성 자료를 대상자들의 자가 보고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지는 대상자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 (social desirability bias)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기억력에 따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과 생식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생식건강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대학생의 54%가 자위경험이, 31.1% 패딩경험이, 38.1%가 성교경험이, 16.9%가 구강성교경험이, 3.0%가 항문성교경험이, 그리고 1.6%가 동성애 경험이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교경험과 생식건강 위해요인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흡연, 음주, 약물복용,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뿐 아니라 만성질환(고혈압 및 당뇨), B형 간염, 갑작스런 체중감소 등의 신체적 상태 및 생활습관이 성교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성교 경험자 2,285명(38.1%)의 성경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50.1%가 5~10회의 성교경험이 있었고, 첫 성교 시기는 평균 19.3세로 나타났다. 상대자는 76%가 애인이었으나 그 밖에 학교 선후배나 일회적 상대, 성매매를 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성교 상대 수는 평균 4.8명이었으며 성교장소는 집(본인, 상대방, 친구)이 44%, 여관이나 호텔이 43.4%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외 노래방, 유흥업소, 야외, 공공화장실, 기타장소도 있었다. 성교 동기는 '사랑'이 49.4%로 가장 많았다. 19.7%가 성교 시 불편감이 있었으며, 7.1%가 성병 경험이 있었고, 임신 혹은 상대방의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11.6%로 보고되



었다. 그 중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경우가 94.4%, 인공임신중절 후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가 17.5%, 합병증의 종류 중 56.8%가 출혈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 성행동 양상에 대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결과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의 변화된 성행동 양상에 따른 생식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간호 상담 및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경험 대학생이 점 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교양상도 다양화됨에 따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병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생식건강 위해요인과 성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초기 사정 단계부터 생식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식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의 성행동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 성교 경험이 주로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나므로 대학 입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임 교육 및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또한 이미 발표된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 양상을 분석해 보고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본 후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생들의 생식기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성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Y. S., Chung, H. J., & Lee, J. S. (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15, 137-154.
- Bancroft, J., Janssen, E., Carnes, L., Goodrich, D., Strong, D., & Long, J. S. (2004). Sexual activity and risk taking in young heterosexual men: the relevance of sexual arousability, mood,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ex Research*, 41(2), 181-192.
- Bancroft, J., Janssen, E., Strong, D., Carnes, L., Vukadinovic, Z., & Long, J. S. (2003). Sexual risk-taking in gay men: The relevance of sexual arousability, mood, and sensation seeking.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2(6), 555-572.
- Beck, C. T. (2001).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ing Research*, 50(5), 275-285.
- Cha, Y. K. (2008). *Relationships of sexual knowledge, sexual education,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 Cho, J. Y., & Kim Y. H. (2006) A path model of self, family, and extra familial system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exual risk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3), 181-195.
- Cho, M. H.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ulture of sexual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2, 5-37.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Finer, L. B., & Henshaw, S. K. (2006).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8(2), 90-96.
- Flannery, D., Ellingson, L., Votaw, K. S., & Schaefer, E. A. (2003). Anal intercourse and sexual risk factors among college women, 1993-2000.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7(3), 228-234.
- Grunseit A., Richters J., Crawford J., Song A., & Kippax S. (2005). Stability and change in sexual practices among first-year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1990-1999).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4(5), 557-568.
- Han, I. Y., Park, I. S., & Baek, Y. O. (2001). A research on risk factors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12, 138-148.
-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200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67-275.
- Jeon, K.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Kang, H. 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ang, I. O., Park, J. Y., Kim, K. H., & Choi, G. C. (2006). *Health insurance service improving for maternity support systeme in low fertility age*.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Kim, J. S. (2010, July 29). "Gold miss" age... single rate of marriage rightable age people is increased five times during 30 years. *Joongang Daily*, p. S20.
- Kim, S. M. (2003). Knowledge on sexuality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4), 489-498.
- Lee, I. S., & Cho, J. Y. (2007).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2), 59-68.
- Lee, W. J., & Ban, D. J. (1999). Health practic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157-169.
- Ma, Q., Ono-Kihara, M., Cong, L., Xu, G., Zamani, S., & Ravari, S. M., et al. (2006). Sexual behavior and awarenes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transition with implied risk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HIV infection: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6, 232-243.
- Morrow, K. M., Vargas, S., Rosen, R. K., Christensen, A. L., Salomon, Shulman, L., et al. (2007). The utility of non-proportional quota sampling for recruiting at-risk women for microbicide research. *AIDS and Behavior*, 11(4), 586-595.
- Nam, H. M. (2003). *A study on prote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m, K. O.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sex and sex behavior and their cyber-sex addiction for improvement of adolescence welfar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3(1), 65-86.
- Parsons, J. T., Vicioso, K. J., Punzalan, J. C., Halkitis, P. N., Kutnick, A., & Velasquez, M. M. (2004). The Impact of alcohol use on the sexual scripts of HIV-positive men who have sex with men. *Journal of Sex Research*, 41(2), 160-172.
- Park, Y. S., Lee, N. H., Jo, D. S., Lee, E. H., Kim, Z. L., Shin, H. S., et al. (2010). *Women's health nursing care*. Sumoon: Seoul.
- Sohn, A. (2002). Health risk-taking behaviors and risk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3(1), 5-14.
- Sohn, A., & Chun, S. (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72-100.
- Woo, N. S., Park, M. S., & Choi, W. K. (2006).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4), 127-150